

| Eurofound 고용노동 분석 보고서 요약 |

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화와 기술변화에의 대응

손옥이 전문위원

이 글은 Eurofound에서 2017년 1월에 발간한 'Addressing digital and technological change through social dialogue' 보고서를 번역, 요약한 글입니다.

1. 개괄

- 덴마크, 독일, 이태리, 스페인은 사회적 파트너가 노동 분야의 **디지털화***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 긴밀히 관여

* 디지털화: 특정 정보에 디지털화가 적용되는 경우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, 사회 시스템이나 조직에 디지털화가 적용되는 경우 디지털 기술의 보급에 따른 광범위한 방식의 변화를 의미

-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가 부문 및 기업 차원에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방법 검토

2. 디지털화로 인한 기회와 도전

- Osborne과 Frey의 연구(2013년)에 따르면, 향후 10~20년 간, 미국은 일자리의 50%, EU는 40~60%가 자동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

- 조사대상 5개국의 노동조합은 저숙련 또는 중간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직과 일자리-자격 간 미스매치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
- 많은 연구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득실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지만, 직업능력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인 영향은 지적
 - * OECD는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 부문 및 전문직 분야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
- 오늘날 기술의 수요-공급 불일치는 특정 국가 부문 특히 정보통신기술, ICT 또는 STEM 분야(과학, 기술, 공학 및 수학)에서 이미 발생
- 디지털화는 자동화나 디지털화로 부족한 노동력 해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가능성 제공
- 재택근무 등 근무지를 벗어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, 노동비 절감 등이 가능

3. 디지털 혁명관련 사회적 파트너의 개입

■ 덴마크

- '16년 6월, 산업 4.0 위원회(Industry 4.0 Commission)를 설립
 - 디지털 기술에 관한 권고제시, 정부 및 부처 주도의 디지털화 관련 이행계획 및 로드맵 준비기구
 - 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
- '16년 11월, 산업 4.0 위원회는 디지털화와 산업 4.0 관련 권고사항 제시
- 사회적 파트너들은 덴마크 국무총리가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이행계획에 참여하기를 촉구
 - 이를 위해, 양자 및 삼자 차원의 비공식 접촉

■ 독일

- '15년 4월, 연방 노동사회부(Ministry for Work and Social Affairs)는 Working 4.0: Thinking further about work **녹서***발간

* 디지털화와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이 고용수준, 급여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부작용 방지가 목적

- 디지털화 및 Industry 4.0의 추세 조명, 논의되고 있는 주요 질문 제기

* 다른 산업, 생산과정 및 고용수준, 작업장 및 안전문제, 노동시간 개념, 공동 결정권, 자격요건, 고용형태, 사회보장제도 등

- 녹서는 새로운 포럼을 위한 출발점 역할, 학계·사회 파트너·복지기관 등이 전문가 워크숍 및 컨퍼런스에 참여

* 독일사용자단체(BDA): 디지털화로 인한 사업수익창출 가능성을 강조, 규제 불필요주장

독일노조총연맹(DGB): BDA의 입장은 규제완화 의도로 규정, 새로운 형태의 고용으로 인한 새로운 규칙 도입주장

- '16년 11월 Working 4.0 백서 발간

- 법정 실업 보험을 '직장보험으로' 변경, 노동시간·장소 등,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초안 작성, 노동자들에게 '타당한 권리'를 제공하기 위한 단체교섭 강화, 단체교섭 범위 확대,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의 설립 등

■ 체코 공화국

- '15년~ 디지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

- '15년 8월 디지털 시장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(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Market) 승인

- '16년 8월 국가 산업 이니셔티브(National Industry Initiative) 4.0 보고서 발간

- 응용연구를 위한 지원, 사이버 안보, 관련 법안도입, 디지털 이슈의 전략적 관리 통합, 새로운 세대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

- 토론에 사용자 단체 전문가, 특정 노동자, 산업통상부, 연구 기관, 학계 및 독립 컨설팅 회사 전문가 그룹이 참여, 그러나 연구 편찬에 있어, 노동조합의 역할은 제한됨

- 이에 체코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Bohemian-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

Union(ČMKOS)가 문제 제기, 경제 사회 협약을 위한 위원회(Council for Economic and Social Agreement)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대한 논의와 Industry 4.0 concept에 노조가 참여

- 최근 산업통상부는 Work 4.0이라는 대규모 분석 연구 착수 발표
- 관청은 Industry 4.0 concept을 실행, ‘Digital Agent’를 임명하여 개별 주 당국이 관련 특정 전략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원
 - 이는 정부의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및 고용 정책 방안 도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줌
-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와 교육 시스템의 현대적 도입을 위한 ‘Education 4.0’에 관한 협력 협정

■ 이태리

- 다음 4개 기관(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, AgID,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)이 2가지의 국가 계획 준비
 - 1) ‘National Plan for Ultrafast Broadband’: 2020년까지 최소 50%의 인구에게 초당 100메가바이트의 인터넷 연결
 - 2) ‘Strategy for Digital Growth’: 2020년 이행 계획 논의 과정에 관련분야 노동조합, 사용자 단체, 대표 기관들이 참여
- ‘16년 7월, 이태리 의회는 디지털 기술 도입 실행전략인 ‘Industry 4.0’계획 발표
 - 사회적 파트너, IT분야 주요 단체, 학계, IT전문회사 대표가 참여

■ 스페인

- 산업에너지관광부(Ministry of Industry, Energy, and Tourism)는 통신부(Secretary of State for Telecommunication)및 스페인 회사와 스페인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‘Connected Industry 4.0’ 도입

- 산업분야의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, 지역적 디지털 해결책의 제공, 스페인 산업과 수출에 경쟁력 및 차별화된 장점 개발
- 정부는 Industry 4.0 관련 공공기관, 산업 및 기술 회사 및 기관, 연구 및 교육 센터, 사회적 파트너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 기구 설립 예정
- '15년 7월, 스페인 산업자원관광부(Ministry of Industry, Energy, and Tourism)는 국내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'Connected Industry 4.0' 발표
 - 스페인노동자위원회(CCOO), 노동총동맹(UGT), 사용자연합(CEOC), 중소기업연합(Cepyme)이 참여
- '16년 5월 CCOO는 '생산경제를 위한 협약'(Pact for a productive economy)을 요구, 스페인 산업자원관광부와 수차례 회의
 - '생산경제를 위한 협약'은 공공당국, 기업 단체, 노조, 대학, 연구 센터가 산업의 디지털 문제를 위한 포럼 설립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
- '16년 7월 CCOO는 '산업의 디지털화'(The Digitalization of Industry)보고서 발간
 - 디지털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협약의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장 담보, 보건안전 및 일가정 양립 등 새로운 노동제도 마련 지적

4. 사회적 대화의 결과

■ 덴마크

- 디지털화 관련 구체적인 단체협약이나 사회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덴마크 노총(LO)과 전문가노조(FTF)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술변화관련 교육 및 훈련정책 마련을 위한 공식 토론회 개최
 - LO와 FTF는 디지털화를 통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 인식

■ 독일

- 전 공공철도회사인 Deutsche Bahn 와 철도교통노조(EVG)는 '단체협약 4.0'(Collective Agreement 4.0)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시작
- '16년 10월, 사회적 파트너는 지정된 사무실이 없이 일하는 모바일 근무(mobile work)와 디지털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 진행
 - BMW는 모바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규정 및 비가용성에 대한 새 규정 도입
- 디지털화로 새롭게 나타날 직업군 규정 및 새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

■ 체코 공화국

- 교육기관, 사용자 단체, 정부는 구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
 -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구축으로 디지털화·디지털 기술·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의 진행

■ 이태리

- Italian National Confederation of Craftmanship and SMEs(CNA)는 '15년 7월 착수한 'Digitaly' 프로젝트 장려
 - 국가연구위원회(CNR)과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아마존과 구글 등의 주요 플랫폼을 중소기업과 연계, 약 9,000개 기업이 연계됨